

국힘 비대위 첫 회의...주호영 “당 분열 국민·당원께 사과”

비대위원 전원 기립해 90도 인사 “통렬한 반성과 성찰로 다시 시작” 사무총장 김석기·수석 대변인 박정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첫 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을 필두로 전원이 기립해 머리를 숙여 일련의 당 내홍 상황에 대해 당원과 국민께 사과했다. 회의장에는 ‘혁신과 변화로 거듭나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적힌 새 ‘백드롭(뒷걸개)’이 걸렸다. 주 위원장은 “첫 비대위 회의인데 마음이 대단히 무겁고 착잡한 심정”이라며 “정당에 있어서 비대위는 가급적 구성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오늘 비대위가 정식 출범하기에 앞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먼저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시작하고자 한다”며 최근 당의 내홍 상황을 하나씩 언급했다.

그는 “갈등과 분열이 생기고, 그걸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가게 된 일, 민생을 잘 챙겨 유능한 집권당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지 못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일이 있었다”며 “새 정부를 제대로 결인해 조기 안착시키고 신뢰받도록 하는 데도 소홀함이 있었다. 국민과 당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 위원장이 “우리 모두 잘못했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취지로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면 한다”고 대국민 사과를 제안하자 비대위원들은 전원이 기립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무거운 표정으로 “하루빨리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이 위기일수록 민생을 챙겨야 한다”며 “민생에서 성과를 낼 때 우리 당은 국민의 지지를 다시 복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일중 정책위의장도 “당의 혼란을 극복하고, 변

화와 혁신된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이들도 차례로 반성문을 써 내려갔다. 당 안팎의 혼란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회의 분위기는 시종 엄숙했다.

임태영 의원은 “비대위 최우선 과제는 당의 소모적 갈등을 즉각 중단시키고, 통렬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비상한 각오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양석 위원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두 축인 집권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대위는 처절한 심정으로 돌아가 당 내부 문제를 조속히 추스르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은 “변화는 멈춤 없이 지속돼야 한다. 변화를 위한 국민의 갈망을 끝까지 안고 가야 한다”며 “도로 자유한국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호남 몫으로 비대위에 합류한 주기환 의원은 “인선 발표 후 호남에서 당의 개혁을 위해 힘써달라는 절박한 목소리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호남에서 우리 당의 정신과 보수의 가치를 뿌리내리고, 확산하는 역할에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비대위 사무총장에 재선의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이 임명됐고, 수석대변인은 조선의박정 의원(강원 원주),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에는 조선의정희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각각 임명됐다.

주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무총장은 재직 기간이 짧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조직부총장을 역임했던 재선의 김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사무총장은 이준석 전 대표 때 조직부총장을 맡아 대선과 6·1 지방선거를 치렀다. 지난 6·1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 수석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실 춘추관장과 대변인을 지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이소희 비대위원의 휠체어를 밀며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힘 비대위 출범후 첫 당정대 회의 28일 개최...수해 지원 등 논의

정기국회 주요법안도 점검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는 28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뒤 첫 번째 고위 당·정·대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삼청동 총리관에서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 지원과 추석 민생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 방침이다. 추석 민생 대책과 관련해서는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과 추석 명절 교통 대책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할 바 있다.

여당에서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중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대변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비

롯해 수해 지원과 추석 민생 대책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장·차관 등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이번 당·정·대 회의는 ‘주호영 비대위’ 출범 후 처음 열리는 만큼 여권 고위 인사들 간의 ‘상견례’ 성격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이 주요 국정과제와 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주요 법안 등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김현숙 장관 “여가부 폐지되도 기능·역할 유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업무보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세계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GGI)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성격차지수 개선을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관련 질의에 “원래는 동의한다”며 여가부가 폐지되도 이는 이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 편제가 달라지는 것이지, 경력단절여성의 지원 등이 없어질 수는 없다고 본다”며 여가부가 폐지되도 기능과 역할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가부가 폐지되면 (기존 기능) 컨트롤타워는 다른 부처에서 담당하게 되나”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김 장관은 “말씀하신 형태로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가 필요한 이유를 묻는 같은 당 위성곤 의원 질의에는 “호주제 폐지·(성범죄) 친고죄 폐지 등 성과는 냈지만, 시대가 바뀌어 현재 여가부의 틀로는 세대·젠더 갈등 해소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또 “부임 후 3개월간 일을 해본 결과 협업이 많은 부처여서 단독으로 일하기 어려웠다”면서 “여가부의 (다양한 가족,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업무보고에 담긴 내용은 중요한 과제인데, 어떤 틀로 가져갈지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수사한 ‘윤석열 사단의 브레인’

尹정부 첫 검찰총장 지명자 이원석 광주 출신...특수수사 베테랑

18일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윤석열 사단의 브레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광주 출신으로 중동고·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하고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대검 중앙수사부, 수원지검 특수부, 서울중앙

지검 금융조세조사부, 대검 수사지원·지휘과장, 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해외범죄재산수합동조사단장 등을 역임하며 특수수사 경력을 쌓았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내던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를 위해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며 활약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사건도 수사하는 등 전 정권에 대한 수사 경험이 있는 점에서 이 차장의 지명은 전 정권 비리 수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07년 수원지검 특수부 근무 시절,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 내에 꾸려



진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돼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인연이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되자 검사장급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해 보좌했다.

이러한 인연 탓에 취임한 뒤엔 수원고검 차장으로, 박범계 전 장관 시절엔 제주지검장으로 밀려나기도 했다.

지난 5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단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27기임에도 고검장으로 전격 승진해 대검 차장검사 자리에 올랐다. 그는 100일이 넘는 총장 공석 상태에서 ‘일하는 검찰’이라는 모토 아래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망고객 확보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MG골프클럽

구분	이용 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 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사옥 임대 문의 (영업지원팀)

5층 MG문화센터 회원 大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

MG금남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7-7(대인동)

☎ 062-223-8007